

이광래 농어촌공사 상임감사, 전남본부 비축 농지 임대형 스마트팜 현장 점검

안춘배 기자 | 승인 2025.03.10 12:24

이광래 상임감사, 청년농업인 만나 격려



이광래 한국농어촌공사 상임감사가 지난 7일 나주 세지지구 '비축농지 임대형 스마트팜' 현장을 찾아 사업 현장을 점검하고 시설을 임차하여 방울토마토를 재배중인 청년농을 격려했다.

'비축농지 임대형 스마트팜'이란 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공공임대용 비축농지에 스마트팜을 설치해 농지와 시설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농들에게 장기임대해 주는 사업이다.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농이면 1인당 0.5ha까지 10년간 임차 가능하며 1회에 한해 재임차를 허용해 안정적으로 스마트팜 영농을 이어 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나주 세지지구 비축농지 스마트팜은 총 사업비 9억 원을 투입해 나주시 세지면에 설치한 2646㎡(800평) 규모의 스마트팜 시설 2동으로 지난해 3월 준공했다. 현재는 청년농업인 2명이 스마트 온실을 각 한 동씩 10년간 임차해 방울토마토를 재배하고 있다.

이광래 상임감사는 청년 농업인이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 관심과 지원이 이뤄져 농촌지역을 활성화하는 성공 모델이 되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안춘배 기자 acbae@aflnews.co.kr